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0월 13일(일) 제1511호

‘CGN 후원,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CGN, 10월 19~20일 정기후원 약정 행사
10월 22~31일 ‘2024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CGN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10월 19일(토)과 20일(일)에 한다. ‘CGN 후원,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을 주제로 진행된다.

CGN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CGN 웹사이트, 모바일로 참여하면 된다. CGN 전직원들은 서빙고(1~4부 예배)와 양재(1~4부 예배), 그리고 일부 캠퍼스에서 특순을 한다.

양문화 자매(CGN 대만지사)는 “후원자님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CGN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다”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관련 기사 6면>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2024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가 국내 5개 지역(대전, 대구, 목포, 춘천, 제주)에서 열린다.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풍당’과 ‘리빙사운드 미니스트리’가 공동 주최하는 교회 미디어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다. 리빙사운드 미니스트리는 예배 음향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게 기술 지원 및 음향 교육 세미나 컨설팅을 하는 비영리 사역단체다.

‘2024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에서는 중계 및 촬영, 디자인, AI 실무, 교회 음향, 풍당 200% 활용법 등 교회 미디어 사역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

촬영 파트 노용환, 박창용 감독(바울로부터, 서서평 등 촬영), 방송기술 파트 이명준, 손광모 감독(제4차 로잔대회, 러브소나타 등 중계), 교회 음향 파트 이재호 대표(리빙사운드 미니스트리 대표)와 CM 미디어 그룹(대표 조명연)이 강의한다. 10월 22일(화) 대구 산성교회, 24일(목) 대구 범어교회, 26일(토) 목포 사랑의교회, 29일(화) 춘천 중앙교회, 31일(목) 제주 성안교회에서 진행한다.

2024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에는 교회 미디어 담당자 및 봉사자, 교역자, 신학생 등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0월 20일(일)까지 구글폼(QR 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사전 등록 3만 원, 현장등록 5만 원이다.

문의: 02-792-0691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함께! 미디어선교

CGN 후원,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10월 19일, 20일은 CGN 정기후원주일입니다.
CGN 후원으로 미디어 선교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2-67804 (계) 온누리교회단
후원문의: 02-796-2243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

10월 21일 오후 7시 30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에게 아름다운 시(詩)와 노래,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하는 전도콘서트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오는 10월 21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는 탤런트 강석우 집사가 사회를 보고,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응광이 공연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10월 13일(주일)까지 아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좌석당 2만 원이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강석우’ 채팅창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10월 26일(토)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주제강의 및 패널 토의, 우수 사례 공유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가 개최하는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10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문제인식 및 공유(소강의 및 발표회), 우리의 미래(주제강의), 실천방안 구체화(패널 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제인식 및 공유’에서는 대학청년 주제공모 발표, 공동체 우수 사례 공유, 청년세대 전도 등을 주제로 강의와 발표가 이어진다.

‘우리의 미래’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생명력 있는 미래 공동체 모습’, 박태성 집사 데이터 및 설문 분석(온누리교회의 현황 및 미래), 대학청년 우수 공모작 발표 및 시상한다.

‘실천방안 구체화’에서는 ‘교회의 미래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리더십 패널 토의를 한다.

김병순 장로(미래성장위원장)는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모든 세대가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라면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창립 32주년

10월 17일 서빙고 비전홀 감사예배

10월 12일(토)과 13일(일)은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창립 32주년이 다. 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행사가 열린다.

10월 12~13일 주일예배에서 감사영상을 상영하고,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로비에서 사역 홍보를 한다.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창립

32주년 감사예배는 10월 17일(목) 오후 7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한다.

두란노국제선교회(TIM)는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선교단체다. 현재 55개 국가에서 선교사 455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4 사르밈 프로젝트

1,560건 접수, 3억9천여 만 원 현금

이웃들에게 복음과 쌀,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밈 프로젝트 결산 내역이 공개됐다.

지난 8월 24일(토)부터 9월 29일(일)까지 이어진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밈 프로젝트에서는 나눔대상자(개인+기관) 1,560건이 접수됐고, 이웃들을 위해 성도들이 3억9천여

만 원(390,288,056원)을 현금했다. 이 현금으로 구입한 ‘감사의 쌀’을 10월 30일(수)부터 나눔대상자들에게 배송할 예정이다.

올해 사르밈 프로젝트는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적기업)와 협업한다. 한동대 소셜벤처에서 쌀 한 포대(20kg)와 성경책을 보급한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온누리교회 머릿돌에 새겨 넣은 <마태복음> 28장 16~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입니다. 온누리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39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선교 포기하지 마시다”라고 외치셨던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전 세계 교회 축소판을 보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의 역사적 의미는 200개가 넘는 나라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유명 신학교, 선교단체 대표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일주일을 함께 보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200개국에서 5,394명이 현장에 참여 했고, 온라인으로 1만 2천여 명, 생중계로 함께 시청한 분이 161개국 3만 여 명, 자원봉사자 2,094명, 매일 중보기도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연 6,888명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선교단체, 전문인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헌신하고,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취되고 있다!

첫째,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명령이 전 세계에서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11명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작 11명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퍼져 나갔고, 지금도 계속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에 대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도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감리교 지도자 화웅 박사는

보르네오 정글에서 일어난 부흥을 발표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은 알코올, 폭력, 질병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C&MA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고, 그 결과 1973~1974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점차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는 이들이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84~1986년 귀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쌀과 물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가난한 자가 먹게 되었고, 하늘에 거대한 불덩이들이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영적은 사들이 나타났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100만 명가량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이들이 증가한다!

둘째,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지역에서 믿는 이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OMF 국제대표였던 패트릭 평 선교사는 이름 없는 선교사들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런던대학교에서 선교사들의 기록을 모아 놓은 수천 개의 문서를 보는데, 직원이 “여기 문서 하나가 중국 사람을 위해 바쳐진 생명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잊힌 이름들, 이름 없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패트릭 평 선교사님이 “그들은 잊히기 위해 살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기억되도록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이름 없이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 파키스탄, 중국입니다. 이란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이 1850~1860년대인데, 전혀 믿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1996년 7명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할 수 있는 7명이 모두 순교한 그때부터 이란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한 분이 파르시드 파티라는 이란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2010년 열린 3차 로잔대회에 이란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습니다. 3차 로잔대회 참석하고 65일 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국가안보

를 위협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5년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2015년 출소한 이후 이란에서 믿는 이들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란 혁명이 일어난 때가 1974년이었는데, 그때 이란의 그리스도인 숫자가 5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중국에서 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공안의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중국 목회자 모임에 제가 참석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번 로잔대회에 와 있는 동안 공안이 중국 집을 압수수색 하고 가족들에게 “당신 남편은 중국에 돌아오는 즉시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갔다고 합니다.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발표하는 분은 기쁨과 능력으로 찬양했습니다.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핍박이 매우 심합니다.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가 쇠퇴하는 지역은 아무런 고난과 핍박이 없는 곳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곳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지역입니다.

순종해야 할 책임은 모든 성도에게 있다!

셋째,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은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선언문 43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위임령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순종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모든 신자를 모든 곳으로 초대한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실천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마 28:18~20)”

이번 로잔대회의 중요한 단어 중에 ‘다중심적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역이 나오는데, 전 세계를 압축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네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곳에서 선교사가 될 때 다 중심적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선교사로 존재할 때 다중심적 선교

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성도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넷째,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취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선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로잔대회 주제가 교회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Declare), 그 다음에 삶으로 나타내자는 것입니다(Display). 대위임령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 삼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모든 것’은 산상수훈의 교훈을 포함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선교사역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교회 사역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함께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빨리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로잔운동이 주장하고 있고,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헌신해 온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바로 이 명령에 단 순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위임 대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온누리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비전이요, 목회 철학이요, 모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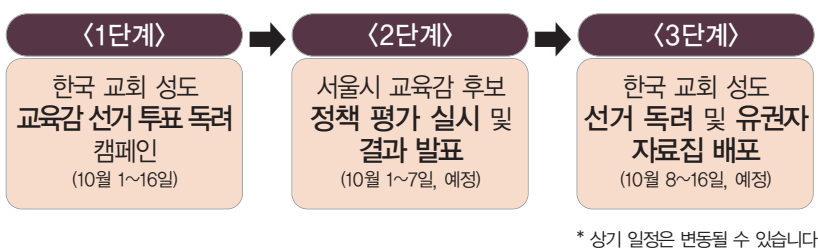
한국 교회 서울시 교육감 정책 분석

2024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네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 분석 결과

2024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 교회 정책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2024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네 후보(정근식, 윤호상, 최보선, 조전혁)에게 질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월 9일(수) 오후 3시 30분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한국 교회 정책 분석>은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을 기준으로 구성된 15개 항목의 질문지를 2024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네 후보에게 발송해 받은 답변을 토대로 제작했다. 다음은 한국 교회 유권자 운동 3단계 계획과 <한국 교회 정책 분석> 내용 요약. / 편집자 주

1. 한국 교회 유권자 운동 3단계 계획

우리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한국 교회 유권자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2. 한국 교회 유권자 운동 주안점

- 본 정책 평가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한국교회총연합을 중심으로 기독교학교를 대표하는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공동 추진한다.
- 우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방식을 논의하지 않는다. 단, 한국 교회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
- 우리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한국 교회 정책 평가 자료집을 서울시 거주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제공한다.

3. 한국 교회 정책 질의 개요(2영역)

- 본 정책 평가는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 측면에서 15개 항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질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정량 분석한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교육정책 답변서

1) 후보 전체 답변 정리

후보	정근식 후보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	조전혁 후보
질문발송	10월 2일(수) 메일 발송			
답변 회신	10월 5일(토) 회신 10월 8일(화) 회신	10월 5일(토) 회신	10월 5일(토) 회신	10월 4일(금) 회신

	후보	정근식 후보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	조전혁 후보
선택권	교육 선택권 중요성	중립	매우 긍정	중립	매우 긍정
	* 교육선택권 현황	중립	제한됨	중립	매우 제한됨
	평준화 정책 평가	수정 불가	개선 필요	중립	반드시 개선
바우처	교육 바우처 제도	답변하지 않음(부정)	긍정	부정	매우 긍정
	교육 바우처 도입	답변하지 않음(부정)	긍정	부정	매우 긍정
	자사고/대안교육 지원	중립	긍정	중립	매우 긍정
자주성	* 사립학교 필요성	답변하지 않음(긍정)	매우 긍정	긍정	매우 긍정
	사립학교 자주성 현황	보장됨	매우 제한됨	제한됨	매우 제한됨
	사립학교 건학이념	중립	긍정	긍정	매우 긍정
	사립학교 교원임용권	답변하지 않음(부정)	긍정	중립	매우 긍정
	교원임용권 수용의사	답변하지 않음(불가)	적극 수정	수정불가	적극 수정
종교사학	종교계 사립학교 정책	중립	긍정	중립	매우 긍정
	건학이념 종교수업	중립	긍정	매우 부정	매우 긍정
	학생인권조례 인식	강한 긍정	부정	부정	매우 부정
사학진흥책(주관식)		1가지 방안 제시	1가지 방안 제시	제시하지 않음	4가지 방안 제시

2) 4가지 영역에 대한 총론적 평가

후보	교육 선택권	교육 바우처	교육의 자주성	종립사학 자율성
정근식 후보	중립	부정(개별의견)	부정	부정
윤호상 후보	매우 긍정	긍정	매우 긍정	긍정
최보선 후보	답변 안함	부정	긍정	매우 부정
조전혁 후보	매우 긍정	매우 긍정	매우 긍정	매우 긍정

3) 한국 교회 및 기독교학교 주요 현안 관련 답변

후보	교육 바우처	교원임용권	종교계 사학 특성성 보장	학생인권조례
정근식 후보	도입 어려움	수정 불가	중립	수정 불가
윤호상 후보	긍정	수정	보장	수정
최보선 후보	부정	수정 불가	보장 불가	수정
조전혁 후보	적극 도입	적극 수정	적극 보장	적극 수정

4. 총평

- 한국 교회의 정책 질문에 대해 4명의 후보 모두 성의 있게 응답함. 단, 정근식 후보의 답변은 형식에 맞지 않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 교회는 4명의 후보 모두가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을 보장해주길 기대함.
- (종교계) 사립학교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함.
- 본 자료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선거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함.

한국 교회 유권자 운동 보충설명

서울시 교육감 후보 교육정책 질의

1. 교육의 '선택권' 영역

교육 선택권이란 교육의 주체들이 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 선택, 교육 방식(공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교과과정 선택,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을 포함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 정책이나 제도가 이러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써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는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교육 바우처(교육급여) 제도

교육 바우처 제도는 국가가 교육 재정을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 주권을 실현하고, 다양한 학교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더 넓은 교육 선택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 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들이 특정 교육 철학이나 이념을 자유롭게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모델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교육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의 '자주성' 영역

사립학교 및 종교계 사립학교 현안

"우리나라에도 사립학교가 반드시 존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고유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사학 공영화 정책'이 아닌 사립학교들이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립학교 진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학교, 불교계 학교, 천주교 학교 등 종교계 사립학교는 그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자주성이란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교육 과정의 편성, 교사 임용, 평가 방식 선택 등 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각 학교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핵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 기관입니다. 이 자주성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과정을 넘어 학교의 모든 운영과 방향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가치이자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평가(2)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
비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
대학대학원 설립원장)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은 총체적 복음의 균형성을 지닌다. <서울선언>은 1차 <로잔언약>, 2차 <마닐라선언>, 3차 <케이프타운서약>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구촌의 이슈인 동성애, 지구촌 종족 사이의 분쟁과 갈등, 특히 북한의 기독교 박해, 첨단 디지털 시대의 기술 등을 언급한 것은 선교학적 공헌이다. 그런데 이외에도 중요한 지구촌 이슈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기후변화 이슈,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화해와 평화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이 보편적 이슈에 관한 하나님 선교에 입각한 복음주의적 언급이 요청된다.

<서울선언>의 세 가지 공헌

<서울선언>은 ‘복음’, ‘성경’, ‘교회’, ‘인간’, ‘제자도’, ‘열방의 가족’, ‘기술’이라는 7가지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선언>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첫째, ‘동성애는 죄’ (67항, 68항)라는 사실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갖고 이들이 성적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상담과 돌봄이 필요하다’(68~70항)’고 피력하고 있다.

동성애에 관련한 선언은 9월 22일 온라인에 올라온 <서울 선언> 임시 보도 이후 모호한 표현과 오해될 수 있는 번역상 표현 때문에 국내 단체들의 항의가 제기되었다. 오해를 불식시키는 반동성애적 명료한 표현의 수정문이 9월 24일 온라인에 보도되었다. 동성애를 죄로 보는 데는 한국로잔위원회와 국제로잔위원회가 동일한 견해를 가졌으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이 어려움이였다. 그런데도 동성애에 대하여 이 정도의 명료한 표현을 관철한 것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가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국제모임을 주최한 한국로잔위원회의 노력 성과로 보아야 한다. 로잔대회가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에 개최지 이점으로 동성애 죄 선언이 <케이프타운서약>과는 달리 <서울선언>에서는 4항목(67항~70항)에 걸쳐 서술된 것이다. 이것은 <서울선언>이 동성애에 대하여 명료히 죄를 선언한 선교 신학적 공헌이다.

또한 <서울선언>은 <케이프타운서약>보다 동성애에 대해 획기적으로 자세히 취급했다. 그래서 필자는 동성애에 대한 <서울선언>이 <케이프타운서약>보다 후퇴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케이프타운 대회 사전 문서(advance papers)들은 공식문서를 만들기 위해 제출된 개인들의 의견(비공식 문서)에 불과하며, 로잔 본부가 이를 공식문서로 채택하지 않았다. 2010년 <케이프타운서약>에는 동성애



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서울선언>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선언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서울선언>의 공헌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서울선언>은 IV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섹션에서 세 항목(56항, 57항, 58항)에 걸쳐 성정체성에 대한 기독교 이해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성과 젠더를 구분하고, 남성과 여성이 창조의 성정체성이며, 성별 유동성(gender fluidity,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성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바뀐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리고 ‘결혼과 독신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섹션에서는 8항(59항~66항)에 걸쳐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인격적인 배타적인 몸의 결합(59항)이며, 결혼 외 성관계는 죄라고 선언(60항)하며, 동성파트너십(61항)을 거부하고 있다.

둘째, <서울선언> VI장 ‘열방의 가족’ 77항~85항에서 ‘열방의 가족’에서 지구상 민족들의 갈등, 분쟁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의 전쟁 등을 언급하면서 민족주의를 조장하거나 신학적 정당성이 없는 갈등을 부당하게 지지함으로써 폭력을 규탄하고 제지하지 못함을 회개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86항에서 한반도의 부당한 분단, 오히려 전쟁과 수백만 민간인의 죽음과 트라우마와 분단 현실을 언급하고, 분단 종식과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서울선언>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운동을 기억하고, 6.25전쟁을 언급하면서 북한에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종식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갈등과 분쟁 있는 곳에서 ‘평화의 중재자(peacemaker)’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WCC 부산대회도 언급하지 못한 한반도 북한 기독교인 박해 사실을 언급한 것은 로잔 <서울선언>의 공헌이다.

셋째, VII장 ‘기술’에서 유전공학, 복제, 생명공학, 마인드 업로드, 디지털 미디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언급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시대 그리스도인은 기술을 예언자적으로 비판하고 관여하는 디지털 기술의 청지기가 되어 디지털 기술을 복음전파의 수단으로 선용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 사회의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선언과 책임의 강조는 로잔운동이 단지 복음전도(preaching Gospel)라는 한 편에 편향되

지 않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는 것이다. 근본주의의 협착성을 피하고, 복음전파의 우선성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총체적 복음(holistic Gospel)을 전하려는 로잔운동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서울선언> 세 가지 아쉬운 점

아쉬운 것은 오늘날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 그 가운데 소위 평등법의 탈을 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책임과 행동, 세상 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언급이 빠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 민족의 화해에 참여한다는 넓은 선교의 개념을 퇴행시켰다는 지적이 복음주의권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진행된 25가지 선교 이슈 트랙 모임의 주제들이 정작 <서울선언>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물론 모든 당면 이슈들을 다룰 수 없다. 필자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긴급한 세계적 과제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포괄적(동성애)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표현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악법이라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서울선언>은 97개 조항 중 무려 15개 조항에서 성정체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동성애 죄 언급은 <서울선언>의 큰 공헌이기도 하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표명을 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평등법’으로 통과되어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평등법 이슈는 한국 교회의 이슈를 넘어 글로벌 이슈다. 로잔운동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반대 표명을 인권 침해로 간주하는 평등법 반대는 분명히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제로잔 위원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등법(동성애차별금지법)은 오늘날 유럽과 북미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함께 입법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로 생활 속에서 ‘탄소 제로(Carbon Zero)’ 운동에 대한 참여가 촉구되어야 한다. 2010년 <케이프타운서약

> IIB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자’ 장 6항 ‘고통받는 창조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하면서 친환경적 소비습관을 채택하지는 내용이 한 페이지 반 언급되었다. 그 후로 14년이 흘러 2024년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응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올해 가장 무더운 여름을 지낸 지구촌의 기후변화와 인류의 책임, 탄소제로운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요청된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제로운동 참여는 지구촌 시민의 긴급한 과제다. 이것은 창조세계에 대한 인류의 청지기 사명을 재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된다.

셋째, 갈등하고 분쟁하는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화해, 정의로운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촉구된다. <서울선언>은 VI ‘열방의 가족’ 장 78, 79, 80, 81, 82, 83, 84, 85항에서 2년째 지속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째 이어지는 가자지구 전쟁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길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우크라이나, 수단, 신장 위구르 등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 억압, 전쟁, 폭력들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해결 계획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분명한 선교적 의미를 갖는다. 전쟁을 조장하는 무기의 생산과 분배, 거래에 대해 반대하는 예언자적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로잔운동은 이들 지역에서 테러 보복, 박해와 살육, 압제가 되풀이하는 세상의 증오와 대결의 정의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 공생, 공존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의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은 하나님 선교의 관점에서 놓칠 수 없는 것들이다. <서울선언> 최종본에는 오늘날 세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으로 보완된 언급이 있었으면 한다. <서울선언>은 9월 24일 1차 수정 후에 공개됐으며, 추후 피드백을 반영한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이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의 선언으로서 근본주의로의 퇴각 또는 인본주의로의 이탈이라는 두 가지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성경적 복음주의(biblical evangelicalism)’의 균형 잡힌 길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계속)

스티븐 호킹, 성경을 러시아로 밀반입하다!



빌 브라운 박사
(콜슨 센터 시니어 펠로우, 콜슨 펠로우 프로그램 명예 학장)

이 제목은 낱시성 링크다. 기사를 계속 읽게 하거나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감각적인 제목이다. 스티븐 콜버트, 스티븐 킹, 스티븐 A. 스미스 같은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면 제목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름들은 효과가 없다. 그런데 종교보다 과학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신앙보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스티븐 호킹이라니! 헤드라인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면 일단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이름에는 무게감, 권위, 신뢰성이 있다. 결국, 그는 과학자가 아닌가! 신, 종교, 창조, 블랙홀, 우주의 종말에 대한 호킹의 견해는 지금도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스티븐 호킹이 정말 성경을 러시아로 밀반입했을까? 답을 찾으려면 끝까지 읽어 보기 바란다! 아니다. 죄송하다. 미끼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답은 ‘그렇다. 스티븐 호킹은 러시아로 성경을 밀반입했다.’ 글 마지막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이 어떻게 고귀한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 대신 논쟁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스티븐 호킹과 빅뱅

현재 과학과 종교는 인류에 관한 지배적인 이야기를 두고 대립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모든 것 위에 스티븐 호킹이 있었다. 이론 물리학자인 호킹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있었다. 그의 연구는 과거 위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심화하고 확장하고 수정했다. 우주의 시작과 블랙홀에 대해 받아들여지는 이론 대부분은 그의 연구 결과이다. 대부분의 이론 물리학자와 달리 스티븐 호킹은 유명인이 되었다. 루게릭병에도 불구하고 연구, 저술, 여행, 다큐멘터리 전문가, 시트콤 게스트, 광고 출연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산을 남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929년 에드윈 허블의 관측을 통해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이 나온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의 생각은 합리보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캠브리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스티븐 호킹이 참여하면서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 이후 연구는 빅뱅 이론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가 무한히 응축적인 물질로 시작되었다는 제안까지 했다.

당연히 과학계에서는 빅뱅 이론의 함의에 대해 많은 사람이 반발했다. 많은 사람은 이 주장이 기독교적 창조관에 신빙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했다. 저명한 이론 물리학 교수이자 네이처 편집자인 존 매덕스 경은 “시작이라는 개념



은 세계의 궁극적인 기원을 암시하고, 창조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호킹 자신도 “많은 사람이 시간에 시작이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데, 아마도 신의 개입을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호킹이 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 사실 호킹은 초기에 신앙을 더 많이 용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30년간 함께한 아내 제인 와일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과학을 지지하는 많은 유명인과 달리 호킹은 자연법칙에 관한 연구와 개인적인 신념을 분리했다.

“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이지 않다. 나는 우주가 과학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는다. 그 법칙은 신이 정했는지도 모르지만, 신이 그 법칙을 어기고자 개입하지 않는다.”

몇 년 후 그는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 신의 존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을 자유가 있다”며 “가장 간단한 설명은 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호킹은 신에 대한 믿음이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중적인 종교적 사고의 한계는 경멸했다.

“권위에 기반을 둔 종교와 관찰과 이성에 기반을 둔 과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과학은 작동하기 때문에 과학이 승리할 것이다.”

신 VS 과학 논쟁

하지만 무엇이 승리할 것인가? 호킹이 과학과 신앙 사이의 홍보전을 의미했다면, 그의 말이 맞다. 과학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현재 통념에 따르면 과학은 사실을 다루지만, 종교는 미신에 기반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당연히 종교를 거부한다. 그러나 과학과 종교가 승자독식의 싸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은 양쪽의 가장 명석한 사상가들조차 오해하는 것이다. 호킹은 논쟁의 동기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러한 그의 사건조차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지닌다. 최근 공개 포럼에서 한 과학 기사는 “일상적인 의식, 미신, 신 등을 믿는 사람은 결코 과학자가 될 수 없다. 가장 생산적이고 평판이 좋은 과학자들은 무종교인

이며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과학과 종교의 역사적 관계는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다. 리처드 도킨스는 기독교인들이 가치 있는 과학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조롱한다.

“초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힘이 정말로 있다면 매주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근본적인 물리적 힘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도킨스는 기독교인이 실제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과학에 무신론적 세계관을 요구하거나 종교적 세계관을 막는 것은 전혀 과학에 내재된 것이 아니다. 과학 대중화론자의 말을 들으면, 믿을 만한 과학자들은 다 무신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과학자 109명에게 수여되었으며, 38명은 유대인이었다.

과학은 과학 그대로

스티븐 호킹은 “어렸을 때는 우주가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다. 지금은 그 방법은 없지만, 그 이유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과학은 중력의 법칙을 실증과 수학을 통해 설명할 수 있지만, 중력이 작동하는 이유나 중력이 존재하는 이유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는 것은 흥미롭지만, 과학은 우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다.

호킹이 우주에 대해 틀렸던 걸까?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우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세계관을 기본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어떤 과학도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 호킹은 결국 질문을 포기한 것 같다. 호킹은 창조에 대해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할 것이다. 자발적 창조는 무가 아닌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유,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

사건적으로 존재하는 힘과 자발적 창조라는

개념은 호킹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경적인 것처럼 들린다. 미래에 대한 호킹의 예측은 간단하다.

“뇌는 구성 요소가 고장 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로 간주한다. 고장 난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역사는 과학이 사실로 밝혀낸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이해로 가득 채운다. 천체 물리학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셉 H. 테일러는 말한다.

“과학적 발견은 종교적 발견이기도 하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는 갈등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발견할 때마다 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더 커진다.”

그러나 호킹은 천국을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이에 존 레녹스는 “무신론은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화답했다.

낱시성 제목의 결론

이제 약속한 대로 호킹이 러시아 성경을 밀반입한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소련을 일곱 번 방문했다. 처음 갔을 때 침례교 신자인 한 학생이 러시아어 성경을 배포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성경을 밀반입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일행은 들리지 않고 성경을 밀반입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당국에 발각되어 한동안 구금당했다. 하지만 성경 밀수 혐의로 우리를 기소하면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고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어쩌면 미래에는 스티븐 호킹의 발견과 이론이 신의 존재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토마스 헤르토그와 함께 쓴) 호킹의 마지막 논문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론 물리학이라는 높은 하늘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들의 논문을 읽은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과학 전문 작가인 필립 고프는 ‘죽어 가는 스티븐 호킹이 정말 신의 존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신론자 호킹이 과학에 마지막으로 공헌한 내용이 신의 존재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호킹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요한복음 1:9)에 불을 붙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스티븐 호킹이 어둠 속에 그런 빛을 가져올 수 있다면 놀랍지 않을까? 성경을 러시아로 밀반입한 것과 같아 보인다.

*문화와 세계관 전문가인 빌 브라운 박사는 오는 10월 26일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에서 '포스트모던 시대 청년 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교회 내 세대 통합과 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 토의한다.

복음 들고 세계로 향하는 CGN!

해외 지사 직원들의 고백 “내가 CGN을 사랑하는 이유”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25개 협업 갭(GAP) 중에서 큰 관심을 받은 분야가 바로 ‘디지털’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선교 할 것인가’를 두고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제는 굳이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CGN의 역할과 섬김이 더욱 귀하고, 필요하다. CGN은 한국 본사 외에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지에 6개 지사를 두고 있다. CGN 해외 지사의 활약과 섬김을 통해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 멋진 일을 해내고 있는 CGN 해외 지사 직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다. “CGN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핍팍아 아룬쟁와타나 자매(HR 담당, 후원금 및 지출입 관리, 2013년 입사)는 CGN 태국 지사에서 일한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CGN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고백이 날마다 떠나지 않는다. “내 피를 뽑아보면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CGN 로고 색)일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녀가 CGN을 이토록 사랑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CGN에서 일하는 것이 곧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태국에서 CGN이 더 많이 알려지고, 후원자가 늘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크리스천 미디어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 태국의 크리스천 미디어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CGN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CGN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중한 일에 보탬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핍팍아 자매가 요즘 뜨겁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CGN 태국 지사 직원 대부분이 교회 사역자입니다. 교회와 CGN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사역에 필요한 새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방해받지 않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CGN 태국 지사 모든 직원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고, 서로 더욱 친밀해지기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만 지사에서 일하는 양문화 자매(후원 업무, 2018년 입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 있다. 대만 지사가 국경을 넘어 중국과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CGN 대만 지사는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유로운 콘텐츠 시청이 제한된 중국 본토에 복음을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CGN 앱으로 복음 콘텐츠를 접하는 크리스천들이 늘고 있습니다. CGN 대만 지사는 대만과 중국이 복음화될 때까지 이 비전을 품고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태국 지사의 핍팍아 아룬쟁와타나 자매(가운데), 대만 지사의 양문화 자매, 미주지사의 주재후 형제(왼쪽), 일본 지사의 카도타 나옴이 자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양문화 자매가 그 힘들고 어렵다는 CGN 대만 지사에 일하는 게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

“저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CGN 대만 지사 직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CGN 대만 지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흔한 질투나 건강하지 않은 비판이 없습니다.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CGN 대만 지사 직원들에게는 서로 돕고 격려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생활도 누리고 있습니다.”

CGN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CGN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후원으로만 방송국을 운영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후원자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CGN이 해내고 있습니다. 모두 후원자님들 덕분입니다. CGN 후원자들은 모두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미디어 선교에 헌신한 덕분에 CGN이 전 세계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CGN이 미국에 꼭 필요한 이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태국 지사의 핍팍아 아룬쟁와타나 자매(가운데), 대만 지사의 양문화 자매, 미주지사의 주재후 형제(왼쪽), 일본 지사의 카도타 나옴이 자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미주 지사는 CGN의 첫 해외 지사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CGN이 갈 필요가 있을까 여길 수도 있는데,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만, 복음에서 가장 빠르게 멀어지는 나라다. 미주 지사에서 일하는 주재후 형제(제작, 2024년 입사)가 미국에 왜 CGN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만 1990년대 이후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더욱 급격하게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세속화, 다원주의, 젊은 세대의 탈종교화, 무교와 무종파 인구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지금 미국은 재복음화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미국의 중심 역할을 다시 하도록 회복하는 게 매우 시급합니다. 21세기 미디어 선교는 미국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확산하는 데 아주 탁월한 도구입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SNS) 등 다양한 매체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CGN이 미국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재후 형제는 입사한 지 8개월 된 신입직원이다. 하지만 CGN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CGN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에 지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서로가 더욱 협력하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CGN 일본 지사,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

일본은 크리스천 인구가 1%도 되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의 고유한 정서적 특성이 전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CGN 일본 지사에서 일하는 카도타 나옴이 자매(후원·홍보업무 담당, 2012년 입사)가 “미디어야말로 일본 선교에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일본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독한 사회’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층까지 모든 연령층이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인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어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선교방식이 그 어떤 도구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였던 사람이 유튜브에서 CGN의 ‘모야모야아웃(고딩아웃)’이라는 고민상담 프로그램을 보고 용기 내 동네 교회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CGN 일본 지사 직원들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울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민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열매도 맺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일을 강하게 부탁하는 게 어려운 문화를 가진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교회에게 “함께 미디어 선교하고, 복음 전합시다! 후원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일이 여전히 긴장되고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미디어 선교사(후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200명이던 후원자가 800명으로 늘었습니다. 미디어 선교에 참여하는 후원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CGN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지난 10월 7~10일 BEE KORE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BEE KOREA 창립 30주년 콘퍼런스

Toward the Next Generation(다음세대를 향해)

BEE KOREA(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성경연장교육))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콘퍼런스(conference)를 지난 10월 7~10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해외 20여 개 국가에서 온 120명의 선교사 등 총 220명이 참석했다.

BEE KOREA 창립 30주년 콘퍼런스에서는 ‘Toward the Next Generation’(다음세대를 향해)을 주제로 나라별 사역 현황 보고와 현지화 전략을 발표했다. 다음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기 위한 주

제 발표와 나라별 토론회도 했다. 축사는 이재훈 위임목사(BEE KOREA 대표이사)가 했다. 이 목사는 “앞으로 BEE KOREA의 사역 지경이 더욱 확장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교의 다음세대를 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EE LUCE CHOIR의 특별공연, 사역의 현지화 기념패와 명예박사 학위 수여도 했다. 사역 현지화를 이룬 4개국(카타르, 인도, A국, 미국)에 기념패를, 그동안 BEE 사역에 기여한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 수여는 BEE KO

REA가 설립한 WLICC(Word of Life Christian College) 명의로 했다.

BEE 사역은 국내에 1992년 소개되었고, 온누리교회와 협력하면서 1994년 BEE KOREA를 창립했다. 2005년에는 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현재 BEE KOREA에서는 해외 지부를 설립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양육 프로그램에서 기초와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 청년통일 행사

10월 18일 오후 7시 서빙고 두란노홀

통일위원회 산하 통일선교팀에서 ‘온누리 청년통일 행사’를 개최한다. 10월 18일(금)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통일사역과 관련한 진로를 고민하거나 통일선교에 비전을 둔 청년, 통일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 청년통일 행사에서는 제4차 로잔대회 북한선교 브리핑,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 탈북민 전도사 찬양특수, 청년 간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문자메시지 또는 QR 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10-7353-8211



NGO 더멋진세상, 탄자니아에 가정용 정수기 보급

NGO 더멋진세상이 10월 말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 도도마주 제제레면 마을주민 1,200여 명(200가정)에게 가정용 정수기 25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면소재지에서 5~10km 떨어진 농촌마을로, 웅덩이를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질이 매우 낮고, 그마저도 건기에는 수량이 부족하다. 지하수는 염분 함량이 높아 식수로 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이 마을에 위생적인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적정 기

술을 활용해서 보급형 가정용 정수기를 제작했다. 보급형 가정용 정수기는 현지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서 외부 동력 없이 중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정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료와 소재를 사용해서 현지와 협동으로 제작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각 가정에 위생적인 식수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향후 NGO 더멋진마을 사업의 포문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잔반 줄이기’ 캠페인

10월 13일 서빙고 한식당

서빙고온누리교회 한식당에서 10월 13일(일)에도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한식당에서 배식을 받기 전에 “조금만 주세요” 혹은 “반(半)만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된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잔반이 무려 107톤이다. 잔반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절약,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실천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라인커뮤니티 문화 강연 ‘I Have A Dream’

10월 28일(월)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온라인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문화 강연 ‘I Have A Dream’이 오는 10월 28일(월)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막 오른다. 최정주 권사(아트앤뮤직큐레이터, 이수공동체)가 꿈과 비전에 관한 그림과 음악을 소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QR 코

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티켓은 3만 원(2인)이다. 10월 18일(금)까지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구매한 티켓은 강연 당일 접수데스크에서 수령하면 된다.

문의: 카카오톡 ‘I have a dream’ 채팅창



10월 화요성령집회 ‘UNSUNG HEROES’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0월 화요성령집회가 ‘UNSUNG HEROES’를 주제로 막 올랐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0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5일 이서진 목사 ‘신실한 우정, 요나단’(삼상 18:1~5), 22일 이서진 목사 ‘영원한 청춘, 갈렙’(수 14:6~14), 29일 최대홍 목사 ‘지혜의 등분, 모르드개’(에 4:1~17)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양재 권사콰이어 정기연주회

10월 25일 오후 7시 양재 사랑홀

양재 권사콰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5일(금)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린다.

양재 권사콰이어 단원들의 신앙고백이 담긴 찬양과 가곡, 영화음악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혜숙 권사

가 지휘하고, 이현주 권사가 반주한다. 크룩스(CRUX)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양재 권사콰이어 정기연주회에 참석하고 싶은 성도들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3237-2854

전라북도로 떠나는 창조과학 탐사!

11월 2~3일, 전북 진안, 전주, 김제, 부안 탐방

온누리교회 창조과학선교팀이 ‘전라북도로 떠나는 창조과학 탐사’를 한다. 11월 2일(토)과 3일(일) 전북 진안 마이산, 전주 선교사의학박물관, 김제 금산교회, 부안 채석강 등지를 다니며 창조 흔적을 찾는다. 이번 창조과학 탐사에서는 ‘의료

인을 위한 맞춤형 창조과학 탐사’, ‘성지순례로 떠나는 창조과학 탐사’가 진행된다. 의료인 맞춤형 탐사에는 의사, 약사, 연구원, 간호사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3334-2388(성지순례) 010-7636-6305(의료인)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좌측 QR 코드를 찍으면 10월 둘째 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동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릉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을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원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사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신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کل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ainsabasi Chuu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키토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8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기향 강은수 감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연 김도윤 김성웅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은재 김혜자 김제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현필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태성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호 박성남 박성전 박진중 박철중 배형삼 배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처 송동주 최성민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이유재 이우현 윤재아 이찬우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한호 정현선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현수 전진미 최대용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중희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복 임동원 장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환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권득한 권영선 권용성 권용하 권철준 김경철 김관근 김기호 김남식 김남일 김명중 김병철 김명훈 김상섭 김석인			
● 국내파전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류모세 방성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중균 김중영 김진우 김혜정 네트라 한대원 박지영 이민영 박세현 비 켈 서영철 박씨마 사가르 양현수 윌베세 윌리엄 에릭 마이클스톤 이강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정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장광석 정육진 정요한 제인랑 존파츠 최정현 하효정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영주 강하람 강현구 가우리 구길모 권애람 권애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도모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현필 김홍주 김예담 김예진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현정 김홍미 나가노 이도일 이동준 이매원 이만규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예린 방진기 서예찬 서은섭 손위결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무택 양현모 윤경택 오성광 이진수 이준희 이준영 이원길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길문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이나나 이영세 이영철 이영경 이용하 이우근 이웅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재근 이종수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한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영희 장영준 전구영 전장하 정경무 정대서 정도영 정문규 정병규 정보민 정순봉 정영원 정영화 정재택 정재현 정영철 정영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인 정진하 정파중 최희원 최종진 조희동 주수일 주영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준 한태재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희정 한희식 함곡식 함선호 허광수 허영석 호종일 홍기범 홍태표 홍범식 홍중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황은오 황의서 황재규			
● 사무장로 강기홍 강은철 강창재 강신익 고길범 고대일 고영주 곽병철 관순현 권오섭 권오혁 권혁은 금세중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영순 김도연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갑갑 김민찬 김병삼 김병국 김성규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정민 김정철 김진호 김영한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홍조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장영 김장식 김창원 김철민 김종완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창규 김철호 김광록 김철주 김해기 김해주 김형겸 김형식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희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병현 남상길 남승우 남정진 남수인 노경한 노기홍 노하수 나광원 류기범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로 박진중 박동원 박두원 박영균 박영민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명률 박용원 박용식 박용익 박영한 박일구 박일만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현민 박홍민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중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하 서정희 서광제 성주명 손기현 손기태 손정태 손대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규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학철 신현승 심길섭 심현보 심효무 심하은 안동현 안상현 안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준경 양성욱 양현영 오 명 오병규 오상목 오성훈 오승택 오이식 용내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유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철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영 이석일 이상진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종길 이종우 이태열 이현일 이혜달 이현규 이홍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채남 임현태 임호열 임희정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명호 정삼기 정성순 정현재 정현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윤섭 정운오 정원만 정용화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환 조성환 조진호 조정규 조성대 주재량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보림 최석민 최성완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정 최영수 최호림 하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우 한영석 한필규 함일상 함정철 하 경 허대행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승우 황병원 황상윤 황성주 황유일			
● 명예장로 김승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정우룡 정광택 정성진 지성한 채수상 최창길 홍순직 황용식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김정호 류수광 패트릭스 박지인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창희 주치수 최태화 최원희 최충훈 추교명 함지진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강기우 강건주 강병우 강병오 김선아 김세원 김우석 김은혜 김정경 김정환 김지형 김 찬 김정철 김원종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재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영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원 최영은 최윤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승현 김은실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지민 김은지 김인영 김정규 김지영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창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김민우 남예셀 노보하 노희정 노소라 도은경 문은영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지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우영 오영진 영주희 이영훈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서린 조영혜 전은진 최숙희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 전도사 강요나 김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케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진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수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코바야시 메구 하예진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한스온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지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장갑안 한덕중 홍규석			
●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한재 손정래 신술문 여훈필 유형진 이관표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환 정경주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민 Henry Park Hyun Chang			
●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강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이현식 임한식 오명진 정성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진용 김홍구 남병호 박민규 김진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해숙 유기열 이정민 이경호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9/26(목) 서초C 이경남 집사 모친상 고 이신자 9/26(목) 서초B 이현태 집사 모친상 고 이성례 9/26(목) 강남B 김경민 성도 모친상 고 임미정 10/5(토) 영어예배 고 유나영 성도 10/6(일) 서빙고온누리교회 하효인 간사 부친상 고 허병국 10/7(월) 관악금천 서정원 권사 남편상 고 의의장 10/9(수) 영어예배 이윤철 성도 부친상 고 이준호 10/10(목) 일산파주 김재희 성도 시모상 고 유순자 10/10(목) 신용산 신희탁 성도 부친상, 김용순 집사 시부상 고 심한석 10/10(목) 광명 성경아 집사 모친상 고 김태순 10/10(목) 서빙고 고 정병주 명예장로 10/10(목) 송파B 임경영 집사 부친상 고 조명숙 10/10(목) 도곡 정상규 성도 부친상 고 정병주 10/11(금) OCC 권동희 집사 모친상 고 박필순 10/11(금) 중동로 고 남순임 권사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가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자 자격: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역폭향방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타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천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요양센터 이마음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외상 어르신) 내용: 이마음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마음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양지온누리교회 부근)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은라인 안내 실입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결혼·광고			
■ 결혼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김승동, 양재경(온누리교회)의 아들 김병준(온누리교회) 김준홍, 이인의(송파교회)의 딸 김한나(선한목사교회)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김지웅, 김선화(부산구덕교회)의 아들 김유빈(온누리교회) 이재갑, 김순희(인양초대교회)의 딸 이유민(온누리교회) ■ 광고 농어촌 목회자 자립 스쿨 모집 일시: 11월 4일~6일(연3일) 장소: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 주제: 농어촌교회 성공 목회 사례 대상: 농어촌교회 목회자, 사모 회비: 무료 문의: 손현석 팀장(010-3485-5883)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